



미 증시, 기업 실적 기대감에 사상최고치 경신

미국 증시 리뷰

22 일(월) 미국 증시는 TSMC 실적 호조 이후 반도체 및 AI 수요 기대감 지속이 위험선호심리를 확산시키면서 나스닥을 제외하고 사상최고치 경신 (다우 +0.36%, S&P500 +0.22%, 나스닥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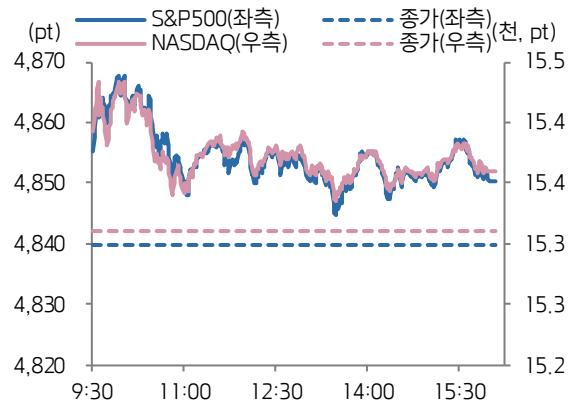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는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미국 예산 정책결정이 개선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 일반 정부적자가 2023~2025년에 연간 GDP의 8%를 초과할 것이며 이는 지난해 8월에 등급 하향 조정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전망. 미국 의회는 지난 18일에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오는 3월 1일과 8일로 각각 연기.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0.1%(예상 -0.3%, 전월 -0.5%)로 지수는 21개월 연속 하락. 콘퍼런스보드는 12월 경기 둔화의 속도가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락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고 설명. 또한 미국의 국내 GDP 증가율이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마이너스 전환할 것으로 전망.

전일 중국 인민은행(PBOC)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LPR 을 3.45%, 5년 만기 LPR 를 4.20%로 5개월째 동결. 인민은행은 공표했다. PBOC 는 지난해 8월 1년 만기 LPR 을 10bp 인하했으나 9월부터는 동결 지속. 1년 만기 LPR 은 신용·기업대출 등 일반 단기대출 상품의 금리에, 5년 만기 LPR 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 앞서 리창 중국 총리가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후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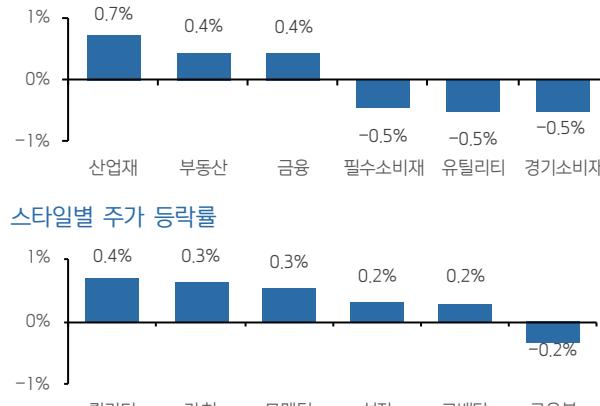
업종별로 산업재(+0.7%), 부동산(+0.4%), 금융(+0.4%) 강세, 경기소비재(-0.5%), 유ти리티(-0.5%), 필수소비재(-0.5%) 약세. 애플(1.22%)은 MR 헤드셋 비전 프로 판매 호조로 시총 1위 복귀. 테슬라(-1.6%)는 전기차의 글로벌 모멘텀은 정체 상태이며 전기차 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것을 근거로 목표주가가 하향된 영향으로 약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64.35	-0.34%	USD/KRW	1,338.71	+0%
코스피 200	332.63	-0.11%	달러 지수	103.35	+0.06%
코스닥	839.69	-0.35%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288.56	-1.32%	USD/CNH	7.19	+0.01%
S&P500	4,850.43	+0.22%	USD/JPY	148.06	-0.03%
NASDAQ	15,360.29	+0.32%	채권시장		
다우	38,001.81	+0.36%	국고채 3년	3.277	-2.6bp
VIX	13.19	-0.83%	국고채 10년	3.375	-4bp
러셀 2000	1,983.38	+2.01%	미국 국채 2년	4.391	+0.7bp
필라. 반도체	4,386.60	+0.25%	미국 국채 10년	4.105	-1.7bp
다우 운송	15,937.03	+2.21%	미국 국채 30년	4.320	-0.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80.32	+0.71%	WTI	74.67	+1.94%
MSCI 전세계 지수	724.32	+1.02%	브렌트유	79.92	+1.73%
MSCI DM 지수	3,175.36	+1.02%	금	2042	-0.32%
MSCI EM 지수	970.91	+1%	은	22.3	-1.83%
MSCI 한국 ETF	58.53	-1.23%	구리	376.35	-0.6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8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7.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 행진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장중 발표 예정인 BOJ 회의 결과 이후 환율 변화
- 샘 올트만 방한에 따른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및 수급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금주에도 4분기 GDP, 12월 PCE 물가 등 주요 매크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달 말 예정된 1월 FOMC가 매크로 상 주요 변곡점이 될 것. 그 전까지는 실적 시즌의 영향력이 우세해질 것이며, 테슬라를 시작으로 2 월 초까지 진행되는 매그니피센트 7(이하 M7)의 실적이 미국 증시를 넘어 국내 증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사실상 전세계 증시의 대장주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세계 수급을 흡수하고 있는 M7은 작년 만해도 S&P500 의 총 수익률 24% 중 약 60%를 기여, 지금 S&P500 내 비중이 25%를 상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

더 나아가 이들(10.5 조달러)의 시가총액은 중국 (8.7 조달러), 일본(6.3 조달러), 독일(2.2 조달러), 한국(1.7 조달러) 등 미국(50.0 조달러) 증시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등극. 이처럼 M7의 시가총액은 여타 국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상회할 정도로 증가하다 보니, 이들 주가 상승세의 지속성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결국 현재의 주가 상승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할 것. 현재 M7의 순이익 컨센트는 +46%(YoY)로 3 분기(+53%)에 비해 소폭 둔화 그칠 것으로 예상(반면 M7을 제외한 S&P 493 개 업체의 합산 순이익은 4Q 에 -7%대 전망). 결국, AI 수요 호조에 따른 이들의 실적 개선 추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단기 주가 레벨 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실제 실적이 지금의 높은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 이를 감안 시 M7 실적 발표 전후로 전반적인 증시의 변동성은 상방과 하방 측면에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특정 방향으로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전략은 후순위로 미워 두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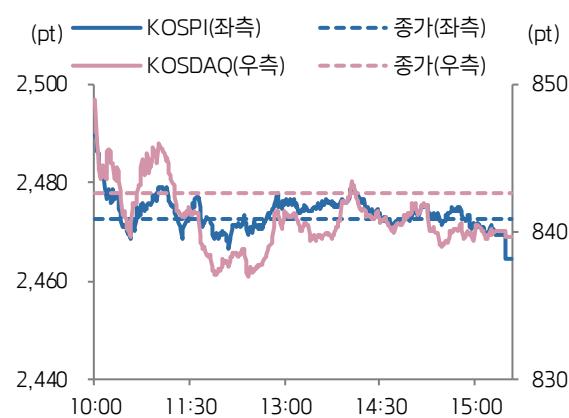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 증시 신고가 경신, 원/달러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이후 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 포드의 전기차 생산라인 축소 등에 따른 이차전지주 동반 급락 여파로 하락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4%)

금일에는 BOJ 회의 및 M7 실적 대기 심리에도, 미 증시 신고가 경신 효과 속 경기선행지수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 역외 환율 약세 등 양호한 매크로 및 외국인 수급 환경에 힘입어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전망. 업종 관점에서는 전일에 이어 반도체 및 AI 주들의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 오픈 AI 의 CEO 샘 올트만의 주중 국내 방한 소식은 반도체 및 AI 관련 업체들과의 협업 혹은 투자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 업종 및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차익실현 vs 기대감 매수)가 예상.

한편, 연초 이후 원/달러 환율이 약 30 원 가량 급등하게 만든 지정학적 리스크(북한, 대만 관련)는 국내 포함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증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흐름을 보면, 외국인 순매수 "기조"에 아직까지 큰 훼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1 월 한달 동안(~17 일)까지 선진국(-89 억달러), 아시아(-26 억달러) 등 주요 대륙에서 자금이 유출된 것은 맞음. 그런데 아시아 내에서 대만(-31 억달러), 중국(-17 억달러)에서도 자금유출이 발생했지만, 한국(+14 억달러)으로는 자금 유입이 일어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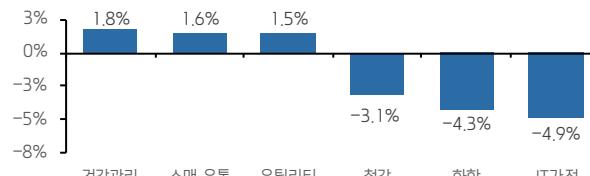
대만 총통 선거 전후 기간인 1 월 11~17 일 기간으로 좁혀서 봐도 마찬가지. 대만(-40.3 억달러), 중국(-22.7 억달러), 인도(-10.2 억달러) 등 메이저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유출이 발생했지만, 한국(+5.3 억달러)로 전주(+1.5 억달러)에 비해 유입 규모는 오히려 확대. 이는 향후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한국 증시의 하방압력을 제한적임을 시사.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는 만큼, FX 측면에서도 외국인 수급 여건은 지난주에 비해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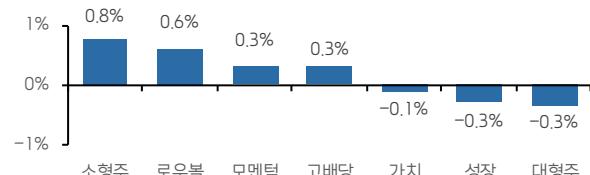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